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1/5(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8-12

1.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차이가 어느 때에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 12:4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만,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아닌, 사람을 보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방향은 같을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발걸음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2.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만한 신앙적 모습을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신앙의 다양한 관점이 소개되었습니다.

-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진짜 믿음의 모습 (창 12:4)
- 신앙은 떠나는 것, 그래서 모험과도 같은 것 (창 12:1)
- 아브라함 자체가 '복' 이라고 하신 것 (창 12:2)
- 신앙은 반드시 인내가 동반된다는 것
-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아브라함의 순종(히 11:19)

이 가운데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동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아브라함을 보면, 인생의 시작도 순종이요, 인생의 절정도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혹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숙제'처럼 남겨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 인생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창 12:1)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절정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창 22장)

3번 질문의 목적은 순종의 이슈를 '나' 에게 조망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① 내 인생에서 순종함으로 얻게 된 복
- ② 혹은,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에 마치 '숙제'처럼 남겨져 있는 부분

이 두가지를 놓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